

사설

지난 6일 조계사와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하고 있던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된 데 이어 7일 재차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총무원의 중재 노력과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 연락이나 진입 고지도 없이 신성한 도량에 경찰이 진입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고 스님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 심상함을 넘어 심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위민정치란?

그동안 조계종의 관련 스님들은 풀안으로 찾아온 노조간부들을 보호하는 한편 한국통신 경영진, 정보통신부, 그리고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을 연차적으로 만나 원만한 사태 해결을 모색해 왔다.

도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사회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복선이나 이기주의는 종교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열린 마당

조계사 공권력 투입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을 강제연행한데 항의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지난 6일 오후 중로경찰서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계 승·재가단체 6·6 관련 성명서

조계종 총무원

평화적 행진이 사회적 사건을 법집행이 아닌 명분으로 침탈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공권력이 너무도 쉽게 남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재가불자연합

쟁의에 들어가기를 전제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수배하고 종교계가 앞장서서 노사간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중에 노동자를 연행해 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각계 한마디

▲무공님(동화사 주지)=골짜기 인내와 대화로써 해결했어야 할 일이며 신성시 되어야 할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종교계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불교인권단체

성소라 고 불리우란 명분으로 침탈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공권력이 너무도 쉽게 남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범불교도대책위

정부는 수배하고 종교계를 앞장서서 노사간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중에 노동자를 연행해 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각계 한마디

▲승회식(변호사)=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성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성적이 불필요하다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이춘기(부산교수복지회 회장)

=공권력 투입이 국가정책 수행상 부득이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특정 종교를 앞장서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강한필(불교방송 사장)

=신성한 사찰에 경찰이 들어온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스님들과 신부들이 중재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평화적이지 아닌 물리력으로 노조원을 연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원섭(시인)=사찰과 성당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을 종교계가 앞장서서 밖으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한통사태'를 접한 불교계는 화해를 주선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다만 강력히 요구해온 종교계의 뜻을 노골적으로 짓밟은 것이다.

교계 중재 불구 물리적 해결 "유감"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통신노조의 계속되는 노사분규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강력히 요구해온 종교계의 뜻을 노골적으로 짓밟은 것이다. 정부는 불자와 천주교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원섭(시인)=사찰과 성당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을 종교계가 앞장서서 밖으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다.

▲이원섭(시인)=사찰과 성당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을 종교계가 앞장서서 밖으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다.

시론

당혹스러웠던 현충일 아침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대립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와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됨으로써 노·사·정 3자와 종교간의 충돌이기는 일단 막을 내렸지만, 이를 거울삼아 새로운 미래지향적 노동문제의 해결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매년 봄만 되면 우리에게도 노사분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정치 경제적 갈등을 확산시켜 왔다.

특히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정립을 위해서는 불교의 가르침에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특히 봄만 되면 우리에게도 노사분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정치 경제적 갈등을 확산시켜 왔다.

특히 봄만 되면 우리에게도 노사분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정치 경제적 갈등을 확산시켜 왔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내용을 집약한 의상의 '一多多即一', 즉 둘이면서 둘이 아니요 하나이며 하나가 아니라는 대승적 사고는 바로 오늘날 한국 노사분규의 주체인 노·사·정 모두가 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속셈은 생 각지도 않았을 것인가.

내용을 집약한 의상의 '一多多即一', 즉 둘이면서 둘이 아니요 하나이며 하나가 아니라는 대승적 사고는 바로 오늘날 한국 노사분규의 주체인 노·사·정 모두가 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속셈은 생 각지도 않았을 것인가.

미래지향적 해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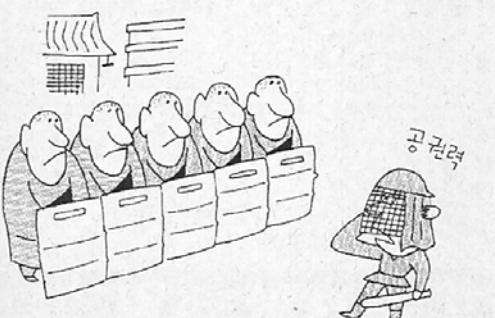
금년 노동운동은 두가지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오는 6월 27일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사·정 모두가 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속셈은 생 각지도 않았을 것인가.

미래지향적 해결방법

금년 노동운동은 두가지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오는 6월 27일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사·정 모두가 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속셈은 생 각지도 않았을 것인가.

현대 만평

박구원



이렇게 해서라도...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이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햇볕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대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